



FY2016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2016 회계연도 연례보고서 | 2016.9 - 2017.8

중
한
일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2010년 12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3국 정부가 공동서명한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FY2016 연례보고서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016 회계연도의 사무국 활동내용과 행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영문 보고서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Annual Report FY2016》의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문 번역본이 영어 원문과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
日中韓三国協力事務局

연례보고서
FY2016

2016.9 – 2017.8



목차



인사말	04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소개	06
FY2016 하이라이트	10
I. 정부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15
1. 정 무	16
2.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20
3. 사회·문화	31
II. 협력사업 발굴 및 촉진 지원	39
1. 정 무	40
2.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44
3. 사회·문화	48
4. 공동 프로젝트	55
III. 여타 국제기구 및 관계자와의 교류 및 조정	59
1. 지역협력기구 및 국제기구	60
2. 지방정부	64
3. 공공기관	66
4. 언론 및 홍보	67
IV.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수행 및 출판	71
1. 2016 한중일 3국협력 실적보고서	72
2. 2017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	72
3.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	72
4. 한중일 공통 어휘사전	73
행 사	74
한눈에 보는 FY2016 3국협력사무국 활동	77
영문 약어	78



이종헌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2016 회계연도 (2016.9 - 2017.8) 연례보고서는 3국협력 사무국 제3대 협의이사회 임기 중의 활동내용과 행사를 담은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지난 1년간 3국은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고무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6년 9월 최초로 개최된 한중일 3국 스포츠 장관회의를 포함하여 3국간 협의체의 개수는 7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협력범위는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정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한층 진전된 정부간 협력을 지원하고 3국협력 체제 내 70여개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증진해 왔습니다. 30여개에 달하는 사무국의 고유사업은 보다 확대된 규모와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사무국의 오랜 고유사업 중에 하나인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IFTC)은 정확한 현상진단 및 미래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기 위한 견고한 협력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국협력사무국은 잠재적인 미래 협력사업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공급망연결(SCC) 향상을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보다 진전된 협력을 위해 사업 성과를 제11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에서도 3국 통상장관회의를 위한 중추적인 지원을 계속하였는데, 이를 위해 2016 회계연도 중 서울과 베이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또한 **환경보호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한중일 교사교류 프로그램(TTEP)**과 **산림용어집 발간 공동사업**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전문가들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한편, 사무국은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NTCT)** 등 3국간 학술교류에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3국 협력 관련이슈 및 브렉시트, 아세안+3 협의체 20주년 기념일과 같이 지역협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및 국경을 초월하는 이슈와 관련하여 3국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자와 전문가들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한중일 3국협력은 세 나라와 동북아 지역이 윈-윈-윈(win-win-win)을 기초로
보유자원과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전과제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캠퍼스아시아 사업의 정례화
를 바탕으로 TCS 지역교육협력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
하여 역내 대학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미래 글로벌 리
더 양성을 위해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
록 지원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무국은 한중일 공용한
자 808자에 대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한중일 공동 어휘
사전(TCVD)** 편찬작업을 수행하면서 3국이 공유하는 문
화자산에 부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
해 왔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경제성장 저하, 보호주의의
재등장, 기후변화, 재난관리, 테러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초월하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복잡
하고 교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및 평창, 도쿄, 베이징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올림픽대회 등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도 많습니다. 이러한
도전과제와 기회들은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요구하며,
한 국가의 역량으로는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 지역발전의 중추로서 한중일 3국협력은 세 나라와
동북아 지역이 윈-윈-윈(win-win-win)을 기초로 보유
자원과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전과제에 적시적
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3국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야 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2016 회계연도를 끝으로 한
중일 3국 정부는 각각 2년간 순차적으로 사무국을 이끄는
첫 라운드를 마쳤으며 이제 향후 6년 동안 지속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년이 '정착의 시기'였다
면, 향후 6년은 '발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국협
력사무국은 현존하는 그리고 부상하는 도전과제들을 되
돌아보고 이들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가지는 의미를 되
짚어 볼 것입니다. 또한 사무국은 향후 2년간 '3국의 윈-
윈-윈 협력 촉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적역량 강
화'라는 두 가지 주요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
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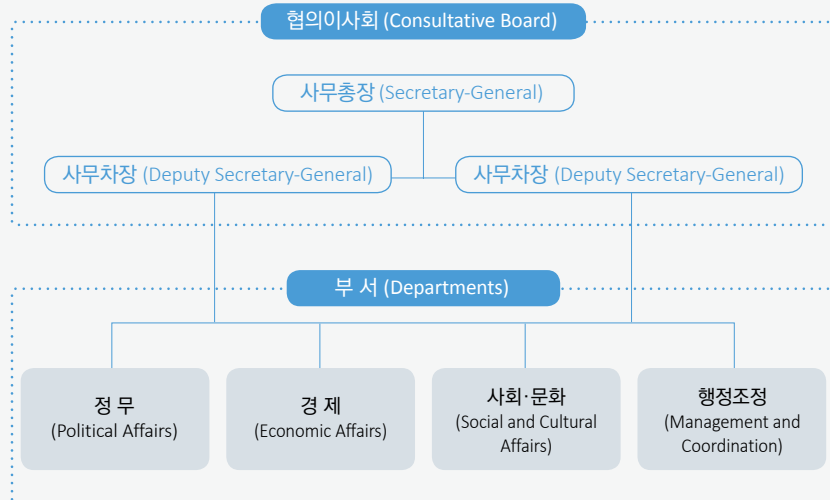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대한민국 (이하 '한국'),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 일본국 (이하 '일본')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서명한 협정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되었습니다. 각국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 정부가 매년 사무국 운영예산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다양한 부문과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한중일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3국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3국협력이 앞으로도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기능

- 정부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 협력사업 발굴 및 촉진 지원
- 여타 국제기구 및 관계자와의 교류 및 조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수행 및 출판

조직구조



협회사회

협회사회는 사무국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중일 각국이 2년마다 윤번제로 임명하는 1명의 사무총장과 2명의 사무차장으로 구성됩니다.

1대 협회사회 2011.9 - 2013.8	사무총장	 한국	신봉길
	사무차장	 일본	마츠카와 루이(松川 隼い)
	사무차장	 중국	마오 닝(毛宁)
2대 협회사회 2013.9 - 2015.8	사무총장	 일본	이와타니 시게오(岩谷 滋雄)
	사무차장	 중국	천 평(陈峰)
	사무차장	 한국	이종현
3대 협회사회 2015.9 - 2017.8	사무총장	 중국	양 허우란(杨厚兰)
	사무차장	 한국	이종현
	사무차장	 일본	우메자와 아키마(梅澤 彰馬)

2016 회계연도를 끝으로 3국은 각각 첫 번째 순환임기를 마쳤으며, 한국측에서 두 번째로 제4차 협회사회의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한국의 이종현 사무총장, 일본의 야마모토 야스시(山本 恭司) 사무차장 및 중국의 한 메이(韩梅) 사무차장으로 구성된 제4차 협회사회가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서

3국협력사무국에는 3국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인력과 한중일 각국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된 일반인력으로 구성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정부부

- 외교
- 안보
- 역내이슈
- 국제이슈
- 재난방지·관리
- 싱크탱크 네트워크

경제부

- 무역·투자
- 교통·물류
- 세관
- 지식재산권
- 정보통신기술산업
- 금융
- 과학·기술
- 표준화
- 에너지
- 소비자정책
- 환경보호
- 농업
- 수자원
- 산림

사회·문화부

- 문화
- 청소년 교류
- 언론
- 교육
- 보건복지
- 관광
- 지방정부교류
- 인사행정
- 스포츠
- 공공외교

행정조정부

- 기획·조정
- 대외홍보
- 인사
- 행정·법무지원
- 예산·회계
- 기록관리



1999 Nov.

3국협력의 시작

제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최초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필리핀·마닐라)

2008 Dec.

3국협력의 제도화

아세안+3 정상회의라는 기존틀에서 탈피하여 제1차 한일중 별도 정상회의 개최 (일본·후쿠오카)

2009 Oct.

3국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인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 시, 한중일 3국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 설립에 대한 3국 정상간 합의 (중국·베이징)

2010 May

『3국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간 『3국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 채택 (한국·제주)

Dec.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한중일 3국 정부간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서명 (한국·서울)



1 3 4
2

1.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 채택 (2010년 5월)
2. 3국협력사무국 개소식 (2011년 9월)
3. 3국협력사무국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2015년 11월)
4. 3국협력사무국 설립 5주년 기념 리셉션 (2016년 9월)

2011 Sep.

3국협력사무국 개소식 (한국·서울)

2012 May

3국협력사무국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중국·베이징)

2013 Oct.

3국협력사무국 제16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브루나이·반다르세리베가완)

2014 Nov.

3국협력사무국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미얀마·네피도)

2015 Nov.

3국협력사무국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한국·서울)
3국협력사무국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2016 Sep.

3국협력사무국 설립 5주년 기념 리셉션 (한국·서울)
3국협력사무국 제19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라오스·비엔티안)

FY2016 하이라이트

055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IFTC)은 사무국이 3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대표적인 연례사업입니다. 이 포럼은 저명한 학자 및 정책결정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3국간의 정치환경과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적 유대관계를 공유하고 새로운 통찰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IFTC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관한 세션을 포함하여 “새로운 도전 속의 3국 협력 강화”라는 주제 하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한중일 3국의 고위인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였으며, 기조연설에서는 향후 3국협력 전망과 역내 번영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브렉시트가 지역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 세미나 (한국·서울)

p.40 브렉시트가 지역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 세미나

브렉시트(Brexit)가 지역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 세미나에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유럽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브렉시트 평가와 그 거시적 영향” 및 “브렉시트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 하에 브렉시트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협력에 대한 브렉시트의 단기 및 중장기 파급 효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p.42 한중일 3국협력에 대한 신진학자/연구원 교류 프로그램

3국협력사무국은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간의 학술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에 관한 신진 학자/연구원 교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나절 동안의 세미나, 연구방문 및 사무국이 주관하는 지역 협력에 관한 지역간 대화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p.45 한중일 경제 심포지엄

제2차 한중일 3국 경제 심포지엄은 사무국의 연간 연구발행물인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의 후속 프로젝트로서 “기रो에 선 세계화: 3국 경제 협력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과 일본국제관계포럼(JFIR)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약 70명의 학계, 외교 분야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3국의 최신 경제정책 및 3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습니다.

제2차 한중일 경제 심포지엄 (일본·도쿄)





제1차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 실무그룹회의 (한국·서울)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한중일 비즈니스 심포지엄 및 교류회 (중국·칭다오)

p.22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

3국협력사무국은 2016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전자상거래 활동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를 분석하여,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역 차원의 디지털 단일시장 실현과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30 한중일 산림용어집 발간 공동사업

3국협력사무국은 산림치유와 같이 새로 개발된 분야에서 각국의 산림 관련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3국간 산림 관련 용어사용을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중일 산림용어집 발간 공동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의 산림 관련부처의 호응을 받아 사무국은 제4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기간 중 제1차 산림용어집 발간 공동사업 실무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13명의 전문가와 3국협력사무국 관계자가 회의에 참여했으며 용어집의 포함범위, 용어의 개수, 용어집의 활용방안 및 대상독자층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3국은 산림용어집이 포함할 중점 분야와 주요 연구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p.47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한중일 비즈니스 심포지엄 및 교류회

공급망연결(SCC) 향상을 위한 한중일 3국 심포지엄은 제10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에서 승인된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3국협력 공동프로젝트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한중일 3국 간의 무역 및 경제에 공급망연결이 미치는 영향과 최근 발전 동향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심포지엄에 이어서 3국의 경제단체, 기업 및 사업가 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보공유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국의 연례사업인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 교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p.27 환경보호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한중일 교사교류 프로그램

한중일 3국 환경 부처가 주관하는 대중인식 제고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제1차 한중일 교사교류 프로그램(TTEP)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기술”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3국의 우수한 중학교 교사, 교육 전문가, 공무원 및 언론인이 참여한 4일간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중일 학생들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개선하고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협력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 p.38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 대표자회의

제1차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NTCT) 대표자 회의가 2015년 3월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합의 및 2015년 11월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 명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p.52 TCS 지역교육협력 세미나 — 한중일의 캠퍼스아시아

TCS 지역교육협력 세미나는 2016년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한중일 교육협력에 대한 3국 교육부의 지원요청에 따른 사무국의 후속 조치로 개발되었습니다. 사무국은 캠퍼스아시아(CAMPUS Asia) 사업이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3국간 협의체 중 하나임에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국 대학의 실무 관리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2일 일정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p.52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TJEP)은 언론인들의 3국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신뢰와 우호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프로그램은 2017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한중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으며, 3국 언론인 12명이 프로그램 대표단으로 참여했습니다.

■ p.54 청년대사프로그램

청년대사프로그램(YAP)은 한중일 3국의 미래 지도자 간의 3국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 제5회 청년대사프로그램에는 18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2주간 강연, 토론, 시찰, 문화투어 등의 활동을 통해 한중일 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정을 쌓았습니다.

TCS 지역교육협력 세미나 — 한중일의 캠퍼스아시아 (한국·서울)



中
학
기

I

정부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3국 정상회의, 3국 외교장관회의, 3자 위원회 및 다른 장관급 회의, 그리고 3국 고위급회의와 같은 당사자 간 3국 협의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요 협의체에 사무국 대표를 참석하도록 조치”

—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제3조 제1항 가호



1. 정무

정치

한중일 3국 외교부간 협의체는 고위급 회담의 의제 및 정상회의의 결과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협의체가 빈번히 중단된 점을 고려하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6 회계연도 기간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의 습관'을 강화함으로써 3국협력 프로세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제도화 촉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3국의 사무국으로서 한중일 3국의 아세안+3 (APT) 협의체 참여를 지원하고 APT의 발전과 비전을 촉진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제19차 아세안+3 정상회의

2016 회계연도 기간 중 양 허우란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사무국 대표단은 2016년 9월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세안+3 정상회의(ASEAN Plus Three Summit)에 참석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3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아세안+3 정상회의부터 이 협의체에 초청받아 왔습니다. 사무국은 실질적인 프로젝트 및 정기회의를 위한 기회확대를 위해 아세안 의장국 및 한중일 3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여 아세안+3 협력에 대한 사무국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아세안+3 협력 프로세스는 1997년 12월 아세안 정상과 한중일 3국 정상의 비공식적인 정상회담 개최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세안+3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사회, 정치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에 제도화 되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9월 7일

장 소: 라오스·비엔티안

참가자: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

일본, 중국, 한국 3국 정상

의 제:

- 아세안+3 협력의 성과 평가 및 미래 협력방향
- 지역 및 국제이슈

결 과: 『제19차 아세안+3 의장 선언문』, 『지속가능개발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아세안+3 선언문』, 『활동적 고령화에 관한 아세안+3 선언문』

안 보

아래의 협의를 통해 3국은 안보 관련 각 분야의 국가별 정책과 전략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해당 분야에서 3국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통된 문제를 파악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 중에 3국협력사무국은 다양한 안보문제에 관한 3국 협의체에 대한 참여를 넓히고 3국간 합의된 후속조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제9차 한중일 원자력 고위규제자협의회

이종헌 사무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사무국 대표단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Top Regulators Meeting (TRM) on Nuclear Safety]에 참석했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3국의 원자력안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는 “한중일 3국의 시각: 동북아 지역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세션을 주최하였습니다.



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는 2008년 9월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원자력 안전 규제와 관련된 이슈 및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지역간 원자력 안전 협력을 개선·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협의회 아래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TRM+)와 합동비상훈련(JED) 등 기술회의 및 3개의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1월 29일

장 소: 중국·베이징

참가자: 중국, 일본, 한국 3국 원자력 규제기관장

의 제: ■ 3국 원자력 안전 규제 활동 검토

- 실무그룹의 진행상황 및 미래 계획 논의: (1) 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 실무그룹(WGHRD), (2) 온라인정보교류시스템 실무그룹(WGOIS), (3) 비상대응능력제고 실무그룹(WGEPR)
- 합동비상훈련(JED) 논의

제4차 한중일 대테러협의회

3국협력사무국은 참관인 자격으로 제4차 한중일 대테러협의회(Trilateral Counter-Terrorism Consultation)에 최초로 참여했습니다. 사무국은 3국 대표단이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3국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3국의 국제 및 지역 테러 상황평가와 대테러 정책 및 대책에 관한 정보공유를 진행하는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또한 3국 대표단과 이 분야에서 사무국의 역할 및 향후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중일 대테러협의회는 「3국 협력 비전 2020」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3국의 대테러 기관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안보위협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1월 15일

장 소: 한국·서울

참가자: 한국, 일본, 중국 3국 외교부 및 대테러 기관 관계자

의 제: ■ 각국 대테러 정책 및 방안 소개

- 테러 방지(CT)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C/PVE)을 위한 3국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견해 교환

제3차 한중일 사이버 정책협의회

사이버정책협의회는 2013년 중국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첫 회의는 2014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한중일 각국의 사이버 정책 및 우수 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호 신뢰와 3국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참관인 자격으로 3차 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Trilateral Cyber Policy Consultation)에 참여했습니다. 사무국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국제 사이버 문제,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한 3국간 논의를 면밀히 관찰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3국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무국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2월 10일

장 소: 일본·도쿄

참가자: 일본, 중국, 한국 3국 외교부 및 관련 기관

의 제:

- 각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및 정책, 관련 정부 구조에 대한 정보교환
- 유엔정부전문가그룹(UNGGE), 신뢰구축 및 역량강화방안, 국제 및 지역간 교전 등 국제 사이버 이슈
- 잠재적 3국 협력 분야

2.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무역·투자

세계경제의 주요 엔진으로서 한중일 3국은 세계경제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국의 경제·무역부처간 협의체는 한중일 모두에 유익한 공통의제 및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6 회계연도에 3국협력사무국은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제·무역관련 협의체에서 승인된 다양한 사업을 조정·관리함으로써 3국협력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공급망연결(SCC) 향상을 위한 3국협력 공동프로젝트(이하 “SCC 사업”),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이하 “전자상거래 사업”) 등 한일중 통상장관회의 하에서 다양한 공동사업을 조율하는 한편, 아세안+3 체제 하에서 3국 경제협력 사업을 보다 확장시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 사무국은 『아세안+3 협력계획(2018-2022)』를 토대로 지역통합을 촉진하고 아세안+3 협력사업 및 이니셔티브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세안 사무국 및 여타 아세안+3 관련 기관과의 공통관심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제11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

제11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



「SCC 사업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일중 통상장관회의는 3국 통상장관들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및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3국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제11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를 위한 고위급회의


3국협력사무국은 2012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Trilateral Economic and Trade Ministers' Meeting)부터 참관인 자격으로 이 협의체에 참여해왔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우메자와 아키마 사무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국 협력사무국 대표단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3국 통상장관들은 3국간 무역 및 투자관계,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급망연결 향상, 올림픽과 패럴림픽, 전자상거래, 제4국 시장, LNG 및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3국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메자와 사무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SCC 사업 결과를 3국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들은 사무국이 주최하는 한중일 산학 대화채널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3국협력사무국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0월 29일

장 소: 일본·도쿄

참가자:  일본 경제산업성(METI)

 중국 상무부(MOFCOM)


 한국 산업통상자원부(MOTIE)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참관인 자격으로 2016년 10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를 위한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3국의 관계부처 국장들이 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제안된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G20, APEC 등 국제적 범위의 협력과 한중일 FTA, RCEP 등 역내 경제파트너십을 포함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올림픽과 패럴림픽, 공급망연결 향상, 지방경제 협력, 한중일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제4국 시장 공동진출 및 LNG 분야 협력 등을 3국협력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사무국은 SCC 사업 결과를 3국 국장들에게 보고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0월 28일

장 소: 일본·도쿄

참가자: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상무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제1-2차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 실무그룹회의


제11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3국협력사무국이 관리·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 활동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를 분석하여, 3국 모두에게 유익한 지역 차원의 디지털 단일시장 창출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1차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 Meeting for the Joint Study “Trilateral Cooperation on E-Commerce”)는 2017년 5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중일 3국 경제 및 통상 부처 공무원들과 지정 연구기관 연구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7년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각국의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전자상거래의 동향과 해당분야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양 회의를 주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2017년 9월 일본에서 제3차 실무그룹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은 2017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 사업의 성과는 차기 한일중 통상장관회의에 제출될 것입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5월 25일, 2017년 8월 8일

장 소: 한국·서울, 중국·베이징

참가자:  중국 상무부, 중국 정보통신기술연구원(CAICT)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한중일 대화




제11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에서 공급망연결(SCC) 향상을 위한 대화 채널 설립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대화채널의 설립목적은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CAITEC),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 3국 연구기관들이 기존 SCC 사업의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망연결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관회의의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3국 협력사무국은 2017년 7월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한중일 대화 [Trilateral Dialogue for Improvement of Supply Chain Connectivity (SCC)]를 주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3국의 산학대표를 초청하여 SCC 사업에서 제안된 실천계획 이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국은 사업의 성과를 다음에 개최될 3국 통상장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7월 21일

장 소: 중국·칭다오

참가자: 3국 경제 및 학계 대표

-  중국 상무부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일본 경제산업성

지적재산권

세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특허 출원량을 반영하여 전세계 지적재산권 체제 발전을 위한 3국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국협력사무국은 3국의 지적재산권 유관 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협의체와 관련하여 3국협력은 다른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장관급 회의에 해당하는 3국 특허청장회의가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자동화 및 특허 심사에 대한 합동 전문가 회의 및 3국의 지적재산훈련센터 센터장 회의 등 여러 실무급 회의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3국은 또한 트리포(Trilateral IP Offices: TRIPO)라는 3국간 지적재산 협력 웹사이트도 설립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분야의 사업을 개발·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제16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특허권, 디자인 및 상표권 등에 대한 3국협력을 위해 2001년 설립된 한중일 특허청장회의(Trilateral Policy Dialogue Meeting among JPO, KIPO and SIPO)에 2014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일본 가나가와에서 개최된 16차 회의에서 각국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현상향을 점검·보고하였으며, 세계 특허 출원량의 57%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비중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참관인 자격으로 초청받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및 3국 IP 심포지엄은 지적재산 분야의 최근 3국협력 사업을 검토하고 미래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한중일 3국의 특허청장이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2월 8일

장 소: 일본·가나가와

참가자: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SIPO)

의 제: ■ 특허, 디자인권 및 상표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3국협력
 ■ 심사에 관한 통계정보의 정기 교환

한중일 IP 심포지엄


한중일 IP 심포지엄(Trilateral IP Symposium)은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정기사업으로 3국협력사무국이 매년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제16차 특허청장회의 개최일 다음날 우메자와 아키마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 심포지엄에서는 한중일 각국의 행정 및 사법기관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최신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2월 9일

장 소: 일본 가나가와

참가자: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

한중일 3국의 판사, 전문가 및 정부 관료

주요 프로그램:

- 지적재산권 소송의 최신 동향에 대한 강의
- “제법한정 물건발명”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



환경보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는 21개의 3국간 장관급 협업체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잘 확립된 협업체 중 하나입니다. 3국 환경부는 1999년 이래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협력에서 큰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다양한 환경 문제 관련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3국 환경부는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9개의 우선협력분야를 포함한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TJAP) (2015~2019)』을 채택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환경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장 중요한 3국간 협업체 중의 하나로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장관회의에 대한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회의에서 승인된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9개의 우선협력분야에서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등 의미있고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3국협력사무국은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TEMM)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한중일 국내, 역내 및 국제 환경 이슈 관련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환경정책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실행계획 (2015~2019)』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3국협력사무국이 2017년 8월에 개최한 환경 보호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한중일 교사교류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3국 장관은 또한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폐기물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청년포럼 및 3국 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청년포럼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장은영 3국협력사무국 경제부장은 청년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3국 관계 증진 및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위한 환경분야 실무급 및 국장급회의


개요

일 시: 2017년 8월 25일

장 소: 한국·수원

참가자:  한국 환경부

 중국 환경보호부

 일본 환경성

부대행사: 청년포럼, 3국 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개최 준비를 위한 실무급회의(Directors-General Meeting for TEMM19)와 국장급회의(Pre-TEMM19)가 2017년 2월과 3월에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양 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실무급회의에서는 『공동실행계획 (2015~2019)』의 진행상황,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작업을 위한 일정, 3국협력사무국이 제안한 환경보호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한중일 교사교류 프로그램, 3국이 제안한 협력사업안 등 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작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장은영 3국협력사무국 경제부장은 3국 교사교류 프로그램 준비 진행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장급회의에서는 실무급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공동선언문 초안을 교정했습니다. 우메자와 아키마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은 국장급 회의에서 개회사를 전달했습니다.


개요


한중일 환경분야 실무급회의

일 시: 2017년 2월 15일

장 소: 한국·서울

참가자:  한국 환경부

 중국 환경보호부


 일본 환경성


한중일 환경분야 국장급회의

일 시: 2017년 3월 24일

장 소: 한국·수원

참가자:  한국 환경부

 중국 환경보호부

 일본 환경성





제1회 환경보호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한중일 교사교류 프로그램

2016년에 열린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환경부처는 3국협력사무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환경보호 대중인식 제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와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중인식 제고 사업은 『공동실행계획 (2015~2019)』에서 선정된 9개의 우선순위 협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한중일 환경부처는 2016년 6월 3국협력사무국이 주최한 회의에서 학생, 교사, 청년의 중요한 역할과 초중고 학생 및 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인적교류가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3국협력사무국은 대중인식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보호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한중일 교사교류 프로그램[Trilateral Teacher's Exchange Program (TTEP) —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3국 환경부처의 지지와 지원 하에 3국협력사무국은 각국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8월 7-10일에 한국 서울에서 운영되었으며, 환경교육 전문가와 중학교 교사 9명, 한중일 공무원 3명, 언론인 4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스마트 친환경 기술”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환경친화현장을 방문하고 환경 친화적인 장치도 만들며 환경 교육의 협력 증대와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정보와 노하우를 교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과 대중에게 보다 나은 환경교육 제공이라는 도전 과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에게 보고되었으며 공동 선언문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8월 7-10일

장 소: 한국·서울

참가자: 한중일 3국 중학교 교사, 교육 전문가 및 언론인; 한국 환경부, 중국 환경보호부, 일본 환경성 대표단

주요활동: 남이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친환경 현장 방문, 친환경 장치 제작, 시민사회, 정부 및 재계 전문가들과의 대화, 참여자간 지식 및 경험 공유

보 건

정부간 협의체에 대한 사무국의 참여 증진에 합의한 3국 정상들의 결정에 따라,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3국간 보건협력의 역사를 수록한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MM) 10주년 기념서적을 편찬하고, 보건의료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새로운 협력의제에 대한 정보공유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보건 관련 한중일 정부간 협의체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3국협력사무국 이종헌 사무차장은 2016년 12월 3일과 4일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 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THMM)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종헌 사무차장은 연설을 통하여 3국협력의 주요 동력으로서 보건 분야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회의 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3국 보건장관들은 『제9차 보건장관회의의 공동선언문』의 채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은 의료 복지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3국협력사무국의 후속조치들을 포함하여 주요 보건이슈에 관한 3국협력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사무국은 2013년부터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2월 3-4일

장 소: 한국·부산

참가자:

-  한국 보건복지부
-  중국 전국위생가족위원회
-  일본 후생노동성

부대행사: 제1차 한중일 검역 실무회의

결 과: 『제9차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산림

3국협력사무국은 3국 정상이 제시한 정책, 행정 및 기술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관련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산림 분야의 3국 협력은 주로 국장급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회의 운영지원 뿐만 아니라 산림분야 협력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후속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림 분야에 대한 임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3-4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3국협력사무국은 2014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Trilateral Director-General Level Meeting on Forestry Cooperation) 이래 이 회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우메자와 아키마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3국의 산림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메자와 사무차장은 제4차 회의에서 부대행사로 제1차 한중일 산림용어집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3국 산림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사업 개발을 통해 협력강화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두 차례 회의 이후 공식회의록(ROD)을 작성하여 각국 산림청에 제출했습니다.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는 3국의 산림협력과 글로벌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3국 산림청 수석대표가 윤번제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개요

제3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일 시: 2016년 9월 7-8일



장 소: 일본·도쿄

참가자:  일본 임야청
 중국 국가임업국
 한국 산림청

제4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일 시: 2017년 7월 18일

장 소: 중국·시닝

참가자:  중국 국가임업국
 한국 산림청
 일본 임야청

부대행사: 제1차 한중일 산림용어집 발간 공동사업 실무자회의

한중일 산림용어집 발간 공동사업 실무자회의

산림용어집 발간 공동사업(Joint Project on Forestry Lexicon)은 3국협력사무국이 제3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회의에서 3국의 산림관련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해 제안한 공동사업입니다. 3국 산림청은 산림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3국협력사무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7년 제4차 국장급 회의의 부대행사로 제1차 실무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산림용어집은 2018년에 발간될 예정이며 3국의 산림관련 용어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소통에 기여할 것입니다.



3.

사회·문화

문화

3국협력사무국은 동아시아 문화도시(EACC) 프로그램 지원, 제9차 한중일 박물관장회의 및 제10회 한일중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 참여 등 한중일 문화장관회의(TCMM)에서 정해진 주요 후속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9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3국협력사무국은 2013년부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Trilateral Culture Ministers' Meeting: TCMM)에 참석해 왔으며, 이 회의의 주요 후속사업인 동아시아 문화도시(EACC)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9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17년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3국 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2017 교토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참관인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했으며, 한중일 3국 문화부처는 『2017 교토 선언』을 통해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의사를 명기하였습니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3국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3국간 협의체입니다. 3국 문화장관회의는 '문화·예술', '문화재' 그리고 '문화산업'을 3국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으며, EACC 프로그램, 한중일 박물관장회의 및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은 장관회의 하에 결정된 유관 후속사업입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8월 25-26일

장 소: 일본·교토

참가자:  일본 문부과학성

 중국 문화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부대행사: 2017 한중일 예술제, EACC 정상회의

결 과: 『2017 교토 선언』

2017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그램

동아시아 문화도시(East Asian Cultural Cities: EACC) 프로그램은 한중일 3국의 도시간 문화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에 시작된 3국 협력사업입니다. 매년 각 국가마다 하나씩 선정되는 문화도시는 고유 전통과 현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3국간 각종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7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일본 교토, 중국 창사 및 한국 대구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2017년 2월 18일 교토와 2017년 5월 12일 대구에서 각각 열린 EACC 개막식 등 2017 프로그램 관련 주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 회랑” 현대미술전을 공동후원하였으며, 지난 2016



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IFTC)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의뢰한 최정화 작가의 「한중일 공동 상용 808 한자전 — 숨쉬는 꽃」이라는 작품의 미술전 전시를 지원했습니다.

개요

일 시: 연중사업
 참가자: 일본·교토
 중국·창사
 한국·대구

3국협력사무국 지원사업: “아시아 회랑” 현대미술전 (일본·교토)

제9회 한중일 박물관장회의

한중일 박물관장회의(Triateral Meeting of the Directors of National Museums)는 3국의 문화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해 20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3국 국립박물관은 2014년부터 회의의 부대행사로 공동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9회 회의는 2016년 11월 4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 허우란 사무총장이 이끄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참관인 자격으로 이 회의에 처음 참여했으며, 양 사무총장은 한중일 국립박물관 공동개최 특별전 <동방화에: 15-19세기 중일한 회화> 개막식에서 축사를 전달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1월 4일
 장 소: 중국·베이징
 참가자: 중국 국가박물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부대행사: 한중일 국립박물관 공동개최 특별전 <동방화에: 15~19세기 중일한 회화>


제10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Trilateral Cultural Content Industry Forum)은 3국 문화산업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제10회 포럼은 2017년 6월 28일에서 3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으며 이종헌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이 이끄는 사무국 대표단은 이 포럼에 참관인 자격으로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사무국은 정부 및 민간 공동세션에서 한중일 공동제작의 성공적인 사례로 지난 2016년 11월 19일에 개최한 유쾌한 한중일 무비토크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6월 28-30일

장 소: 일본·도쿄

참가자: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문화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주요활동: 3국회의, 공개 세미나, 정부와 민간 공동세션, <2017 콘텐츠 도쿄>에서 공동 홍보

결 과: 『제10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

교육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3국 교육부(MOE)와 협력하여 한일중 교육장관회의(TEDMM)의 후속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또한 어린이 동화교류 프로그램 이행기관 및 캠퍼스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CAMPUS Asia)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등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아시아 사업은 한중일 3국간 대학(원) 상호교류프로그램으로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의제 중 하나입니다. 2016 회계연도 기간동안 3국협력사무국은 해당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TCS 지역교육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3국 교육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1차 한일중 대학총장포럼

한일중 대학총장포럼(Trilateral Rectors' Forum: TRF)은 3국의 대학총장들이 윤번제로 한 자리에 모여 고등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국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한 제1차 포럼은 2016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부대행사로 열린 캠퍼스아시아 사업 발대식에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17개의 기존 및 신규 캠퍼스아시아 사업단 대표자인 대학 총장, 부총장, 교수 및 교직원 170여명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양 허우란 사무총장이 이끄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이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양 사무총장은 2016년 신설된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로 인해 한층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3국간 교육협력 진전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축사를 전달했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캠퍼스아시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업의 정례화 및 제1차 한일중 대학총장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2월 13일

장 소: 한국·서울

참가자: ■ 한중일 3국 교육부 관계자
■ 한중일 대학 총장
■ 캠퍼스아시아 사업 담당자 및 기타 교육 당국 관계자

부대행사: 캠퍼스아시아 사업 발대식

스포츠

한국, 일본과 중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 분야의 3국 협의체가 2016년에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제1차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TSMM)는 스포츠 산업, 장애인 스포츠, 도핑 방지 및 체육교육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에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스포츠 협력에 관한 새로운 협의체를 제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제1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이종헌 사무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참관인 자격으로 2016년 9월 22일부터 23일 양일에 걸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Trilateral Sports Ministers' Meeting: TSMM)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는 3국의 스포츠산업, 청소년 및 장애인스포츠, 도핑방지 정책 및 전반적인 스포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무국은 또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장관회의 의제 개발 및 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 자문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9월 22-23일

장 소: 한국·평양

참가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일본 문부과학성

 중국 국가체육총국

결 과: 『평양선언』

지방정부 교류

한중일 3국 정부는 각 국의 지방정부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3국간 협력 증진은 정상회의의 오랜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3국 협력은 주로 경제, 관광, 환경, 고령화 사회 및 보건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지자체 차원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주로 참관인 역할을 수행하며 최신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3국협력 분야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18-19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Trilateral Local Government Exchange Conference)는 한국 전국시도지사협의회(GAOK),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CPAFFC)와 일본 지자체국제화협회(CLAIR)가 해마다 공동개최하는 3국 지방정부간의 국제회의입니다. 1999년에 처음 시작된 이 회의는 3국의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주 논의되는 주제는 관광, 문화, 경제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이 있습니다. 제 18, 19회 회의는 일본 오카야마와 한국 울산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약 300명의 한중일 지방정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사무국은 두 차례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개요

제18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일 시: 2016년 10월 18-21일

장 소: 일본·오카야마

주 제: “지방정부 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활성화”

- 의 제:
-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 차원의 학습과 실천
 - 문화·예술에서 시작되는 지역 활성화
 - 지방정부간 연계를 통한 관광진흥

제19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일 시: 2017년 8월 28일 - 9월 1일

장 소: 한국·울산

주 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발전방안 모색”

- 의 제:
-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 융복합 제안
 - 생태도시 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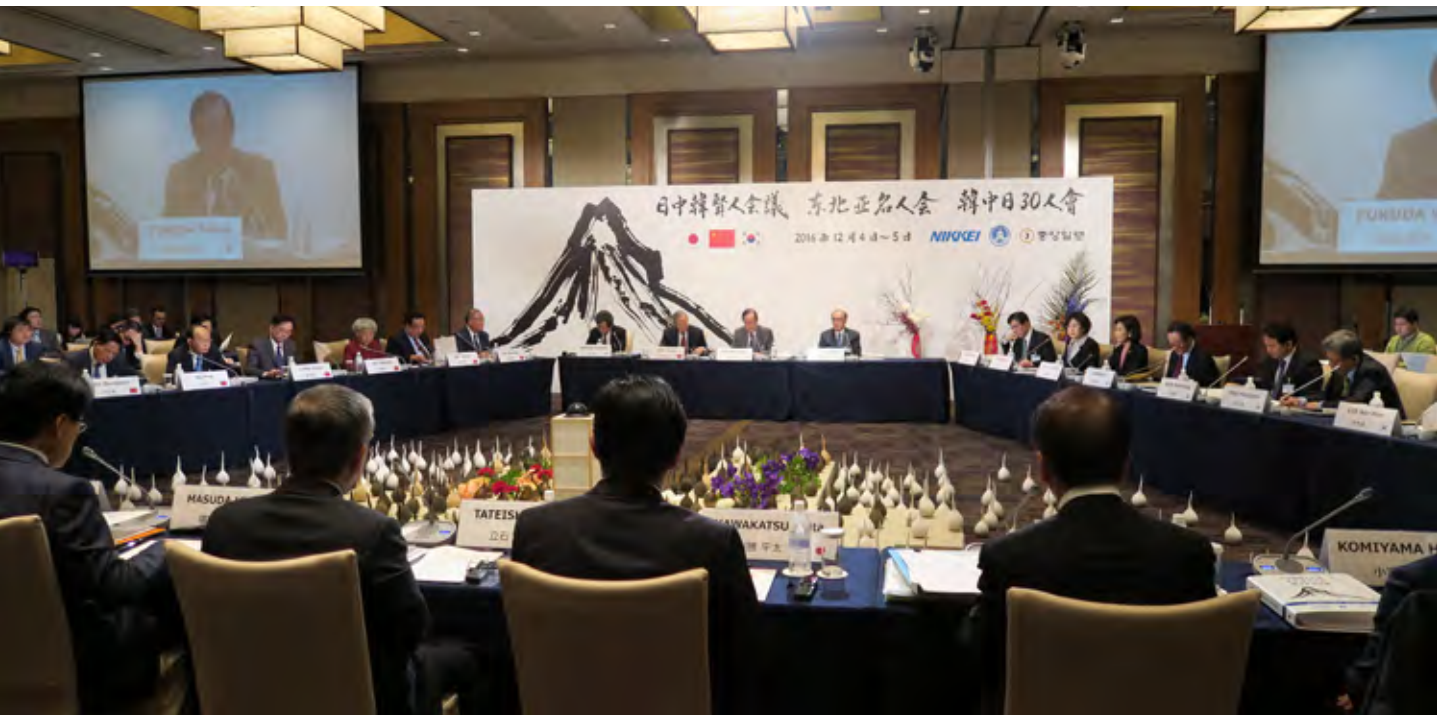
한중일 3국 언론 협력은 3국협력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미디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주요 언론사와의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한중일 30인회(NATF)는 3국협력의 다방면적 발전을 위해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가 모여 협력을 위한 지혜와 의미있는 제언을 나누는 이 분야의 고위급 플랫폼입니다.

제11회 한중일 30인회

한중일 30인회(Northeast Asia Trilateral Forum: NATF)는 2006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3국의 주요 언론사인 한국의 중앙일보,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닛케이신문이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30인회는 정치, 경제, 학술 및 문화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지역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역내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회의의 주요성과로는 「한중일 공동 상용 808 한자표」가 있습니다.

양 허우란 사무총장이 이끄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2016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제11회 한중일 30인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무국은 2012년부터 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2015년부터는 공식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이 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회의에 제출된 제언들을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의 지정 홍보기관으로서 3국협력사무국은 홍보책자 발간, 포럼 및 사진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해당사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2월 4-5일

장 소: 일본·시즈오카

주 최: 닛케이신문, 신화통신사, 중앙일보

참가자: 일본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중국 쩡 페이엔 전 부총리,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 10여명

주 제: “세계적인 고립주의 확산 — 한중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의 제:
- 금융, 경제 및 무역
 - 환경 및 에너지
 - 문화, 교육, 사회 및 지방교류

싱크탱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3국간 협의체에 지적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학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16 회계연도에 사무국은 한중일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사업 주최 및 지원을 통해 3국 및 다른 지역의 저명한 학자 및 연구원들과 3국협력을 증진하고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1차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 대표자 회의 및 한중일 대화


2015년 3월에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합의된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Network of Trilateral Cooperation Think-Tanks: NTCT)는 3국간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2015년 8월 31일에 정식 출범했습니다. NTCT는 학술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한중일 3국 정부에 지적지원을 제공하고 3국협력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3국간 협의체입니다.


제1차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 대표자 회의 및 한중일 대화(NTCT National Focal Points Meeting and Japan-China-ROK Dialogue)는 2016년 9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협력의 촉진기관으로서 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국간 싱크탱크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NTCT의 운영기제와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국이 윤번제 형식으로 매년 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공동세미나 개최, 합동연구 수행, 상호교류 확대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3국협력사무국에 NTCT 발전을 위한 사무국의 역할을 부여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대표자 회의 이후 세계정치 및 경제에 관한 한중일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한중일 학자와 전문가 및 3국 협력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대화에 참여하였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9월 21일

장 소: 일본·도쿄

참가자:  일본국제관계포럼 (JFIR)

 한국 국립외교원 (KNDA)

 중국외교학원 (CFAU)

의 제: 일본국제관계포럼이 작성한 NTCT 계획서(목적, 기능, 회원, 조직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논의



III

협력사업 발굴 및 촉진 지원

“당사자 간 잠재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확인 그리고 그 사업의
채택을 위하여 관련 협의체에 대한 보고”

—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제3조 제1항 다호



1. 정 무

브렉시트가 지역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 세미나

브렉시트(Brexit)가 지역 통합의 국제적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시의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브렉시트가 지역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 세미나(Special Seminar on the Brexit Implication on Regional Integration)를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 뿐만 아니라 아세안 및 유럽연합 국가의 저명한 학자 및 전문가도 특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브렉시트가 유럽 국가들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교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개 요

일 시: 2016년 9월 28일

장 소: 한국 서울

참가자: 한중일, ASEAN, EU의 학자 및 전문가 14명

의 제: ■ 브렉시트 평가와 그 거시적 영향
■ 브렉시트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 미칠 영향

2016 TCS-KFF 국제회의: 한중일 경제협력 —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향하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공동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한반도미래재단(KFF)과 2011년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기초로 두 기관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2015년 이후 두 차례의 국제회의(TCS-KFF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한중일의 학자, 전문가 및 지역 협력에 관심 있는 300여명의 일반 대중을 한 자리로 모았습니다.

2016년 회의는 “한중일 경제협력 —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초청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2012년 동아시아 비전 그룹(East Asian Vision Group: EAVG) II 보고서의 제안사항이자 같은 해 ASEAN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설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국의 패널들은 이 지역의 경제 공동체 건설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장래의 과제와 가능한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역대 다국적 FTA의 경제통합 방안들을 살펴보고 참가자들은 3국이 학문적 토론에서 더 나아가 행동지향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우메자와 아키마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도 회의에 토론 참가자로 참여하여 역대 경제통합에 대한 사무국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0월 12일

장 소: 한국·서울

공동개최: 한반도미래재단(KFF)

참가자: 전 정부 고위인사, 한중일 연설자 및 토론 참가자 각각 3명

의 제: EAVG II에서 제시한 2020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

초국경 이슈 관련 3국 협력을 위한 사전 회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7 회계연도에 새롭게 선보일 초국경이슈에 관한 3국 협력 연구 시리즈(Trilateral Cooperation Research Series on Trans-Border Issues) 사업을 위한 예비사업으로서 세계 및 지역 차원의 비전통 안보 환경을 돌아 보고 동북아에서 가장 긴급하게 다뤄져야 할 초국경 안보이슈를 확인하기 위한 초국경 이슈 관련 3국 협력을 위한 사전 회의(Preliminary Dialogue for the Trilateral Cooperation on Trans-border Issues)를 개최했습니다. 세 차례의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은 기후 변화, 사이버 안보, 인구 고령화, 전염병 및 올림픽 관련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초국경 문제에 관한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포괄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3국협력사무국은 초국경 이슈 관련 3국 협력 현황 및 협력체제 내 사무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무국은 동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학술 연구와 공개 포럼으로 구성될 1차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8월 1일

장 소: 한국·서울

참가자: 한중일 학자 6명, 한중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NTCT) 대표자 회의 대표 3명

의 제: ■ 동북아 지역 비전통 안보 문제에 대한 접근

■ 비전통 안보문제 대응 관련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경험

■ 싱크탱크와의 협력 방안 및 초국경 이슈에 관한 3국 협력 연구 시리즈를 위한 향후 계획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신진학자/연구원 교류 프로그램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신진학자 및 연구원 교류 프로그램(Young Scholars/ Researchers Exchange Program on Trilateral Cooperation)은 청년 전문가간 학술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으로 설립되었으며, 시급한 현안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무국에 제출된 논문을 바탕으로 선정된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 과정생 등 한중일 3국의 8명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의 프로그램은 3국의 청년 리더들간 활발한 교류를 촉진시키고 3국 협력을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연구 주제로 볼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나절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 연구소 방문 및 사무국이 주관하는 지역 협력에 관한 지역간 대화 참여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은 무역, 에너지, 환경, 미디어, 인권법 및 사회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 의견과 피드백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날 참가자들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방문했습니다.

사무국은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의견 및 피드백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사무국과 참여학자 모두를 위해 더욱 유용한 대화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8월 7-10일

장 소: 한국·서울

참가자: 한중일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 과정생 등 8명

주요활동: 발표 세미나, 언론인 만남, 연구 방문 및 토론

지역 협력에 관한 지역간 대화 —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3국협력사무국은 2017년 8월 10일 지역 협력에 관한 지역간 대화(Inter-Regional Dialogue on Regional Cooperation)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아세안+3 협력의 20주년을 기념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아세안+3 협력과 단기적 전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건설의 현황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아세안과 유럽 학자들의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 비전과 정치적 신뢰 구축 방법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협력 촉진을 위한 사무국을 포함한 국제기구 역할이 논의되었으며,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신진학자/연구원 교류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학계 내 신규 세대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8월 10일

장 소: 한국·서울

참가자: 한중일, 말레이시아, 영국 학자 등 9명, 한중일 3국협력에 대한 신진학자/연구원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9명

- 의 제:
-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아세안+3 협력 평가
 - 지역 공동체 구축과정에서의 EU와 아세안의 경험과 교훈
 -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전망 및 국제기구의 역할



2.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3국 혁신정책 심포지엄

2015년 11월 1일 개최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각국의 정상은 3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경제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에 대한 각국의 견해는 여러 측면에서 상이했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어느 분야의 혁신이 어떤 방식으로 3국의 이익과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2016년 11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정책연구원(GRIPS)과 공동으로 3국 혁신정책 심포지엄(Trilateral Symposium on Innovation Policy)을 개최했습니다.

연사와 토론자들은 3국의 혁신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STI)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사람들의 잠재력 탐색의 필요성, 개방과 세계화 촉진의 중요성, IT와 융합을 통한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혁신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중점을 둔 혁신 강화의 중요성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또한 3국의 혁신 정책의 유사점 및 차이점, 그리고 미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1) 3국간 상호 특허 협정, (2) 3국의 과학 공동체 설립, (3)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우수 협력 사례 공유 및 홍보, 그리고 공동 연구주제 선정, (4)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논의를 위한 플랫폼 마련, (5) 고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에 대비한 역량 구축, 그리고 (6) STI 협력을 통한 3국 외 국가들과의 경쟁력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1월 22일

장 소: 일본·도쿄

공동주최: 일본정책연구원(GRIPS)

참가자: 중국과학원(CAS), 한국 LG경제연구원,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의 제:
- 한중일 혁신정책과 우수사례
 - 혁신정책 관련 향후 협력방안

제2차 한중일 경제 심포지엄

한중일 경제 심포지엄(Trilateral Economic Symposium)은 3국협력사무국의 주요 간행물 중의 하나인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의 후속사업입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2년 이후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여 3국의 경제 동향과 협력에 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3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향후 협력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도 보고서의 저자 3명을 초빙하여 제1차 한중일 경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 회계연도에 3국협력사무국은 일본국제관계포럼(JFIR)과 일본 도쿄에서 이 사업을 공동주관했습니다. 심포지엄의 형태로 개최된 이 사업에는 학자, 외교관, 연구원 등 7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지역 경제협력에 관한 열띤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세션의 주제는 “기रो에 선 세계화 - 3국 경제 협력의 전망”으로 3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해 다루었으며, 각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새롭고 창의적인 3국 협력을 위한 향후 전망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세션은 우메자와 아키마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이 진행했으며 네 명의 연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2016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이토 모토시게(ITO Motoshige) 일본 가쿠슈인대 교수가 아베 정권 하 일본 경제의 최근 발전을 논의하였



습니다. 중국국무부발전연구센터 장 치(ZHANG Qi) 대외경제관계조사부 부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 송영관 연구원은 국내외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 한국의 경제정책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와이 마사히로(KAWAI Masahiro) 일본국제관계포럼 선임연구위원 겸 동경대 교수는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공동의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발표 후에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경제, 정치 및 안보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지역 및 국제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청중들은 국제 통화체제의 미래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전망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으며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면서, 우메자와 사무차장은 지식과 토론의 축적이 3국 간의 정치 및 경제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계속하여 3국간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플랫폼을 매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올림픽 대회를 고려하여, 3국협력사무국은 올림픽이 각국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심포지엄은 2018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6월 22일

장 소: 일본·도쿄

공동주최: 일본국제관계포럼(JFIR)

참가자: 학자, 연구자, 외교관, 학생 등 70여명

주 제: “기रो에 선 세계화 — 3국 경제 협력의 전망”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한중일 비즈니스 심포지엄 및 교류회

한중일 비즈니스 교류회(Trilateral Business Networking Reception)는 3국의 기업, 상회 및 기업가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3국협력사무국의 연례사업으로서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한중일 3국에서 순환 개최 방식으로 운영하여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교류회 개최 5주년을 맞이하여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한중일 비즈니스 심포지엄(Trilateral Symposium for Improvement of Supply Chain Connectivity)을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중국국제사회(CCOIC),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FKI) 및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KEIDANREN)와 함께 두 사업을 중국 칭다오에서 공동주최하였습니다.

한중일 비즈니스 심포지엄은 SCC 사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급망연결이 3국간의 무역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발전동향에 대한 대중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3개 참여기관의 연구자와 학자들이 기업들이 만족하는 분야 등 SCC



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고 3국 공급망연결 개선을 위한 도전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세션 참석자들은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좀더 광범위한 분야의 산업과 기업들을 포괄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SCC 사업에 포함된 3국의 공급망연결 우수사례 소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뒤이은 비즈니스 교류회에는 경제계 대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일본 경제산업성(METI), 중국 상무부(MOFCOM) 등 정부공무원, 학계 대표 및 일반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공급망연결에 대해 배우고, 그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계속해서 경제 및 무역 관련 사업과 연계한 교류회를 매년 개최하여 3국간 소통과 상호간 이해 및 협업을 도모할 것입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7월 21일

장 소: 중국·칭다오

공동주최: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FKI), 중국국제상회(CCOIC), 일본 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

참석자: 정부관료, 학자, 연구자, 기업가 대표, 일반 청중 등 150여명

프로그램: ■ 공급망연결(SCC) 향상을 위한 한중일 심포지엄

세션 I: SCC 향상을 위한 3국 협력

세션 II: SCC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 한중일 비즈니스 교류회

3.

사회·문화

제3회 한중일 인문 교류 포럼

한중일 인문 교류 포럼(Trilateral People-to-People Exchange Forum)은 한중일의 전·현직 정부 고위관료 및 저명한 학자들이 함께하는 1.5 트랙 3국협력 사업입니다. 3국협력 15주년(1999-2014)을 기념하기 위해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중국외교학원(CFAU), 지린성 한중일협력연구센터(TCSC)와 처음으로 공동주최한 2014년 이후 정례화되었습니다. 제1회 포럼에서 3국협력사무국은 “동북아시아의 상호 신뢰와 화해를 향한 길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구성했으며, 2015년 제2회 포럼을 계기로 한중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NTCT)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3회 한중일 인문 교류 포럼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중국 창춘에서 “한중일 3국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의 증진”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미디어의 목소리: 공동의 책임을 통한 협력 정신의 구현”을 주제로 세션을 주관하였습니다. 해당 세션에는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언론인이 참석하여 미디어의 공동의 책임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 및 3국간 전면적인 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대되는 미디어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참여 언론인들은 3국간 언론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0월 17-18일

장 소: 중국·창춘

공동주최: 중국외교학원(CFAU), 지린성 한중일 협력연구센터(TCSC)

참가자: 한중일 고위 정부관료, 학자, 언론인 등 150여명

주 제: “한중일 3국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증진”



2016 세계한학대회

세계한학대회(World Conference on Sinology)는 중국 대내외 중국학 학계를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입니다. 지난 대회는 “문명의 대화와 조화로운 세계”(2007), “중국학과 교차 문화 커뮤니케이션”(2009), “중국학과 오늘의 세계”(2012), “동양과 서양의 교류와 학습: 400년의 회고”(2014) 등의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2016 세계한학대회는 2016년 11월 11일 중국국가한판 공자학원총부와 런민대학이 공동주최하였으며, 문화의 다양성의 맥락에서 중국학이 지니는 다양성을 다루었습니다. 본 회의에서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의 언어학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한중일 공동 어휘사전 편찬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제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전의 주요 내용, 어휘 선택방법 및 상용어휘 비교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1월 11일

장 소: 중국·베이징

주 최: 중국국가한판 공자학원총부, 중국 런민대학

주 제: “중국학 비교연구: 전통과 혁신”

사무국 세션: 한중일 공동 어휘사전 편찬회의

제3차 한중일 기자 공동취재 프로그램

한중일 기자 공동취재 프로그램은 중국 환구시보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류사업으로, 한중일 언론인 대표 9명이 참여하여 3국간 협력관련 다양한 이슈에 관해 2주간 공동취재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국 협력 증진에 대한 언론인의 이해를 높이고 3국 협력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에 제3차 한중일 기자 공동취재 프로그램은 3국협력사무국과 환구시보가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혁신과 창업”이라는 주제로 언론인들은 중국의 과학기술부, 중관촌 과학공원, 화웨이사, BYD사, 일본의 경제산업성, 와세다 대학 로봇연구실, 니코니코사,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 판교 테크노밸리 및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1월 6-18일

장 소: 중국·베이징, 심천; 일본·도쿄, 오사카; 한국·서울 (방문국가 순)

공동주최: 환구시보

참가자: 한중일 언론인 9명

주요활동: 3국의 주요 경제, 문화, 기술과 관련된 임원 및 기관 취재

TCS LOUPE: 유쾌한 한중일 무비토크

3국협력사무국은 2014년부터 TCS LOUPE라는 공개강연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LOUPE는 “동아시아의 전체를 들여다 본다(Lecture on Uncovering Panoramic East Asia)”는 뜻의 약자입니다. 이 강연시리즈는 한중일 전문가들이 비교적 관점에서 3국의 주목할 만한 분야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사무국은 2016년 11월 19일 일본국제교류센터(JCIE)와 공동으로 유쾌한 한중일 무비토크(Trilateral 'Miss Granny' Special Movie Talk)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1부에서는 3국에서 <수상한 그녀>를 각각 연출한 황동혁 감독(한국판, 2014), 레스티 첸(Leste CHEN) 감독(중국판, 2015), 미즈타 노부오(MIZUTA Nobuo) 감독(일본판, 2016)이 함께 출연하여 3국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작비화, 인기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1부 마지막에는 한국판 주연배우 심은경이 무대인사를 통해 무비토크 참석 소감과 <수상한 그녀>의 국내외 인기비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으며, 전체토크는 약 2시간 동안 관객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유쾌한 한중일 무비토크는 3국에서 제작된 흥행작을 통해 3국간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영화 전문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3국간 문화산업 협력에 기여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문화 콘텐츠 분야의 대표적인 3국간 정부 협의체 중의 하나인 제10차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에서 무비토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쾌한 한중일 무비토크 요약집」은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6회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

개요

일 시: 2016년 11월 19일

장 소: 한국·서울

공동주최: 일본국제교류센터(JCIE)

연 사: 황동혁, <수상한 그녀> 감독

정태성, CJ E&M 영화부문 사장

레스티 첸, <20세여 다시 한 번> 감독

미즈야 노부오, <Sing My life> 감독

심은경, <수상한 그녀> 주연배우

주 제: “영화 <수상한 그녀>로 보는 한중일의 공통성과 다양성”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Trilateral Campus Harmony)는 3국 청년들의 흥미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짧은 동영상으로 발표하여 3국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청년 교류사업입니다. 3국협력사무국과 한중우호협회(KCFA)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제6회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는 2016년 11월 29일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3국 학생들로 구성된 7개 팀이 ‘상호 교류와 영향을 통해 발전해 온 한중일 3국 문화의 흥미로운 변천’에 대한 UCC 비디오를 제작·발표했으며 UCC 제작과정도 소개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심사위원을 맡아 “노래로 표현한 3국통합”을 주제로 UCC를 만든 「한중일의 곡」 팀에게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상을 수여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1월 29일

장 소: 한국·서울

공동주최: 한중우호협회(KCFA)

참 가 자: 3국 학생들로 구성된 7개팀

주 제: “상호교류 및 영향을 통해 발전해 온 한중일 3국 문화의 흥미로운 변천”

주요활동: UCC 비디오 및 제작과정 발표,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상 수여식

TCS 지역교육협력 세미나 — 한중일의 캠퍼스아시아

TCS 지역교육협력 세미나(TCS Seminar on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는 한중일 3국의 실무 교육전문가간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의 의제는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성과보고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본 행사는 캠퍼스아시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간 정보 교환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7년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캠퍼스아시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캠퍼스아시아 사업에 참여하는 17개의 대표단 및 35개의 대학을 대표하는 교수



「TCS 지역교육협력 세미나
결과보고서」는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및 교직원 74명이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는 교차 컨소시엄 네트워킹과 환영
리셉션, 그리고 관심 주제에 따라 3개 소그룹 토론에 참여했으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Erasmus Program)에 대한 EU 실무 전문가의 발표를 청취했습니다. 소그룹 토론
주제는 비학위 학생 지원, 학업지원 및 학생 직업 개발, 그리고 교차 및 공동 학위 프로
그램을 통한 교류 촉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2011-2015년 프로그램 시범 운영단
계에서의 우수사례와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 세미나의 성과는 결과보고서로 발간되어 3국 교육부, 참가자 및 여타 관련기관과
공유될 것입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5월 11-12일

장 소: 3국협력사무국

참가자: 한중일 3국 교육부 과장급 관료, 캠퍼스아시아 대학 부총장, 교수, 프로그램 관리자,
유럽연합위원회 교육 전문가 및 에라스무스 영향 연구팀

주요활동: 한중일 아시아 캠퍼스 프로그램 관리자급 그룹 토론,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에
대한 EU 실무전문가의 발표, 참가자간 네트워킹

2017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Trilateral Journalist Exchange Program: TJEP)은
3국 언론인들에게 3국 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3국 공동 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미
디어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열흘간의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
그램은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의 주력 프로그램으로 운
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7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일본 및 한국에
서 제4차 한중일 언론인 교류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3국 TJEP 대표단에는 총 12
명의 언론인이 합류했습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대표단은 3개 도시의 정부기관, 기
업 및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
(AI) 기술의 정책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표
단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3국 언론사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정 종료 후 3국협력사무국은 프로그램의 성과를 홍보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한중일 언론인 교류 세미나: 제4차 산업 혁명
과 뉴스 미디어”라는 주제로 특별 공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6월 14-23일

장 소: 중국·선전, 일본·도쿄, 한국·서울 (방문국가 순)

참가자: 한중일 언론인 12명

주요활동: 한중일 3개 도시의 정부기관, 기업, 연구기관 방문



제5회 청년대사프로그램

청년대사프로그램(Young Ambassador Program: YAP)은 한중일의 전도유망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2주간의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중일 차세대 리더를 대상으로 3국 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우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 협력에 대한 열정과 외교에 관심이 있는 3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6주간의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201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YAP는 프로그램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을 2주로 조정했습니다. YAP는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언급되어 향후 지속적인 개최에 대한 지지를 받는 등 한중일 정부로부터 3국 청년교류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세계 각지에서 한중일 국적의 청년들이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된 제5차 YAP에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18명의 우수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선발되어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청년대사들은 3국관계의 발전 및 역사, 정치, 경제협력, 사회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강연과 사무국 각 부서의 브리핑을 통하여 3국협력과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의 기능 및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 주한 중국 및 일본 대사관 등 한중일 정부 기관과 유럽연합 대표부, 한-아세안 센터 등 국제기구 및 자원회수시설, 아산정책연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을 방문하였으며 문화활동 및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YAP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3국협력을 촉진하고 3국 청년들의 우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7월 31일 - 8월 11일

장 소: 한국·서울 및 제주

참가자: 한중일 대학생 및 대학원생 18명

주요활동: 강연,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싱크탱크 등 방문, 팀 프로젝트 연구 및 발표, 문화체험 및 관광



4.

공동 프로젝트

2017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Trilateral Cooperation: IFTC)은 2011년에 한국 외교부와 세종연구소에 의해 개최된 후 2012년부터 3국협력사무국이 개최하는 연례 대표사업입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5년부터 3국간 윤번제로 이 사업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IFTC는 저명한 학자 및 정책 결정자들을 초청하여 3국의 정치 풍토, 경제 협력 및 사회 문화적 유대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가대상자는 3국의 정부 고위급 인사, 학자, 비즈니스 리더, 언론인 및 시민사회 지도자 등입니다. 2017년 4월, 3국협력사무국은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 속의 3국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제5차 IFTC를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은 3국이 강조하는 주요이슈에 관한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3개의 주요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불확실 시대의 3국 협력의 본질 재탐색”을 주제로 하였으며, ASEAN, EU 및 3국의 저명한 학자 및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해당 세션의 목적은 브렉시트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반대하는 트럼프까지 일련의 국제적인 사건 이후 서방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퍼진 반세계화 정서에 대응하는 3국협력 증진방안 모색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 전개가 이 지역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션에서는 한중일 3국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3국간 협력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한중일의 미래 리더십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세계가 목격한 전세계적 경제 및 정치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두 번째 세션에서는 3국의 미래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중일의 과거 경험을 돌아보고 글로벌 경제와 현재의 국제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저명한 패널들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비추어 3국의 국제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세션은 전반에 걸쳐 자유무역협정, 통화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의 주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연사들은 국내 및 다자간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보다 광범위한 지역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된 접근 방식에 기초하여, 3국간의 경제협력 진전이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을 성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3국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밝은 미래를 향하여 — 한중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제로 3국과 유럽(덴마크)의 청소년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과 유럽의 모범적인 청소년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3국의 공통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복지, 교육 및 기업가 정신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및 관행을 소개하였으며, 3국 협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지도자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럼 종료 후 사무국은 포럼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IFTC 2017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정기간행물은 3국협력사무국의 향후 역할을 모색하고 3국협력을 위한 미래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참고자료로서 정부, 정치인, 학계 및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을 수집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IFTC는 2018년 4월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IFTC 2017 최종 결과보고서」는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4월 18일

장 소: 한국·서울

주 제: “새로운 도전 속의 3국 협력 강화”

프로그램: 세션1 —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3국 협력 본질 재탐색

세션2 — 갈림길에 선 국제 경제 정책 — 3국 협력을 위한 기회

세션3 — 밝은 미래를 향하여 — 한중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2017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아시아의 미래 번영 공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은 제주 특별자치도가 외교부 지원 하에 주최하는 연례사업입니다. 지역 다자간 대화로서 이 포럼은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은 본회의 및 다양한 네트워킹을 포함해 60개 이상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4년부터 세션 주최기관으로 포럼에 참여해 왔습니다.

2017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12회 제주포럼에 세션 주최기관 겸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과 청소년 교류에 관한 두 개의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양 허우란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제주평화연구원이 “아시아 미래를 위한 공통 비전 공유”라는 주제로 주최한 대사 라운드테이블에 연사로 참석하여 3국협력과 동북아 지역 발전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산업 4.0, 글로벌화된 세계에서의 선도적인 지역 협력”이라는 세션을 통해 산업 4.0의 변혁 사례를 조사하고 기술과 사회가 공존하는 공동된 미래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동 토론에서는 변혁에 적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학계와 민간 부문의 발표자는 최근 산업 4.0의 발전과 3국의 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한중일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산업 4.0의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토대로 윈-윈-윈(win-win-win)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션 발표자들은 3국간 협력이 많은 분야에서 환영을 받고 있으며, 산업 4.0 협력을 위한 홍보가 노동력 부족 및 경제적 격차 등과 같이 현재 3국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3국협력사무국은 2017년 6월 1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주최한 “경제자유구역 라운드테이블: 한중일 성장거점 센터 협력”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장은영 3국협력사무국 경제부장은 패널위원으로서 사무국의 역사와 더불어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3국 협력 공동사업,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 등 사무국의 관련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또한 “3국 청년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교량 건설”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3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세션은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 캠퍼스아시아, 한중일 청소년 외교 캠프, 한중일 대학생 포럼과 같이 청소년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3국 청소년 교류를 제도화하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패널들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한 삶의 단계에 선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맞춤화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3국 협력의 미래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5월 31일 - 6월 2일

장 소: 한국·제주도

주 최: 제주 특별자치도

주 제: “아시아 미래를 위한 공동 비전 공유”

사무국 주관세션:

-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산업 4.0, 글로벌화된 세계에서의 선도적인 지역 협력”
- “3국간 청소년 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의 가교 구축” 포럼

사무국 참여세션:

- 대사 라운드테이블: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 공유”
- 경제자유구역 라운드테이블: 한중일 성장거점 센터 협력



III

여타 국제기구 및 관계자와의 교류 및 조정

“당사자 및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국제기구, 특히 다른 동아시아
협력체와 연락 및 조정”

—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제3조 제1항 나호



1.

지역협력기구 및 국제기구

2016 회계연도 기간 중 3국협력사무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아세안, 유럽연합, 유엔 기구, NGO 등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확대했습니다. 사무국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위해 정기적인 예방 및 협력활동을 통해 아세안과 같은 지역 파트너와의 기존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사무국은 국제무대에서의 3국 협력을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역외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지역간 대화를 발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은 한국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지역협력기구

아세안 사무국·의장국



아세안(ASEAN)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 증진에 있어 3국협력사무국의 우선적 협력 파트너입니다. 3국과 아세안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매년 아세안 사무국(ASEC)과 아세안 의장국을 방문하여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2017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사무국과 2017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사무국 대표단은 우선 아세안 사무국의 대외경제관계 부서와 미팅을 갖고, 공급망연결 향상을 위한 3국협력 공동 사업을 소개하고 양 사무국간 가능한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양 허우란 사무총장은 엔리케 마날로(Enrique A.

MANALO) 외무부 차관을 면담하고 ASEAN+3 협력에 대한 사무국의 지원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양 사무총장은 한중일 대표부의 대사들을 만나 다양한 지역 경제 협정의 전망과 3국간 및 ASEAN+3 협력 체제에서의 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아시아재단

딜런 데이비스(Dylan Davis)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 TAF) 한국지부 대표가 이끄는 재단 대표단이 2017년 5월 30일 3국협력사무국을 방문하여, 양 허우란 사무총장과 이종헌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1954년에 설립된 아시아재단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아시아 전역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개발기구로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워싱턴 DC에 18개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아재단은 면담 중 재단의 역사와 3국 특히 한국에서의 개발현황과 성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아시아재단은 3국 협력과 공동번영 촉진을 위한 사무국의 임무를 인지하고 3국간 NGO 협력에 관한 사무국과의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사무국은 아시아재단이 3국에 기여한 개발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3국협력을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재단과의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사무국

2017년 7월 5일 양 허우란 사무총장이 이끄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사무국을 예방했습니다. 홍종경 NEAR 사무총장은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을 환영하며 NEAR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양 사무총장과 홍 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의 현황과 3국 협력의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 사무총장은 지방정부간 협력이 중앙정부와 달리 국제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보다 시급하고 실용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양측 사무총장은 3국협력사무국과 NEAR 사무국 간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UN 기구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

2016 유엔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



3국협력사무국 우메자와 아키마 사무차장은 2016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인도 정부와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ISDR)의 초청으로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2016 유엔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Asian Ministerial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AMCDRR)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격년으로 개최되어 재난위험 경감 및 관리에 대한 우수사례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관한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재해경감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메자와 사무차장은 “『센다이강령』 이행을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세 번째 특별 행사의 연사로 참석하여 3국의 재난 관리에 관한 지역 협력 성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우메자와 사무차장은 또한 기르시 마디(Kirsi MADI)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 사무처장과 면담을 갖고 두 기관 간 향후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1월 3-4일

장 소: 인도·뉴델리

참석자: 51개국 대표단, 9개 UN기구, 각종 국제기구, 시민단체 대표, 업계 대표 등 4,000여명

의 제: 『재난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2015-2030)』의 모니터링 및 이행 촉진

유엔 글로벌 콤팩트

제9차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3국협력사무국은 2017년 8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9차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UN Global Compact China-Japan-Korea Roundtable Conference)에 특별 후원기관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3국의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지역협회가 2009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3국의 기업, 학계 및 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추구를 목표로 합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한 우리사회의 변혁 — 동아시아의 역할”을 주제로, 150여 명의 참석자가 모여 자국에서 SDGs 홍보를 위한 기존의 노력들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토론세션에서 SDGs 관련 분야에서 3국협력의 사례를 소개하고 “3국 협력과 SDGs: 한중일의 사업이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세션에서 패널들은 SDGs 홍보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세 지역협회간 네트워크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폐막식에서 양 허우란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한중일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언급하고, 더 나은 3국 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협력의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 3국의 지역협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8월 22일

장 소: 일본·도쿄

참석자: 기업 및 학계 대표자 120명, 한중일 대학 및 대학원생 30명

의 제: ■ 양성평등 촉진

■ 기업과 학계 파트너십 역할

■ 책임지는 소비와 생산

■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 SDGs 촉진을 위한 한중일 기업협력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사무소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사무소(UNESCAP-ENEAS)는 2016년 11월 9일 3국협력사무국을 방문하여 두 기관 간 미래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관련 사업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제10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를 위한 후속조치로 2016년에 실시된 SCC 사업을 소개했으며 동북아시아사무소 또한 관련 사업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두 기관은 향후 가능한 협력을 위해 최신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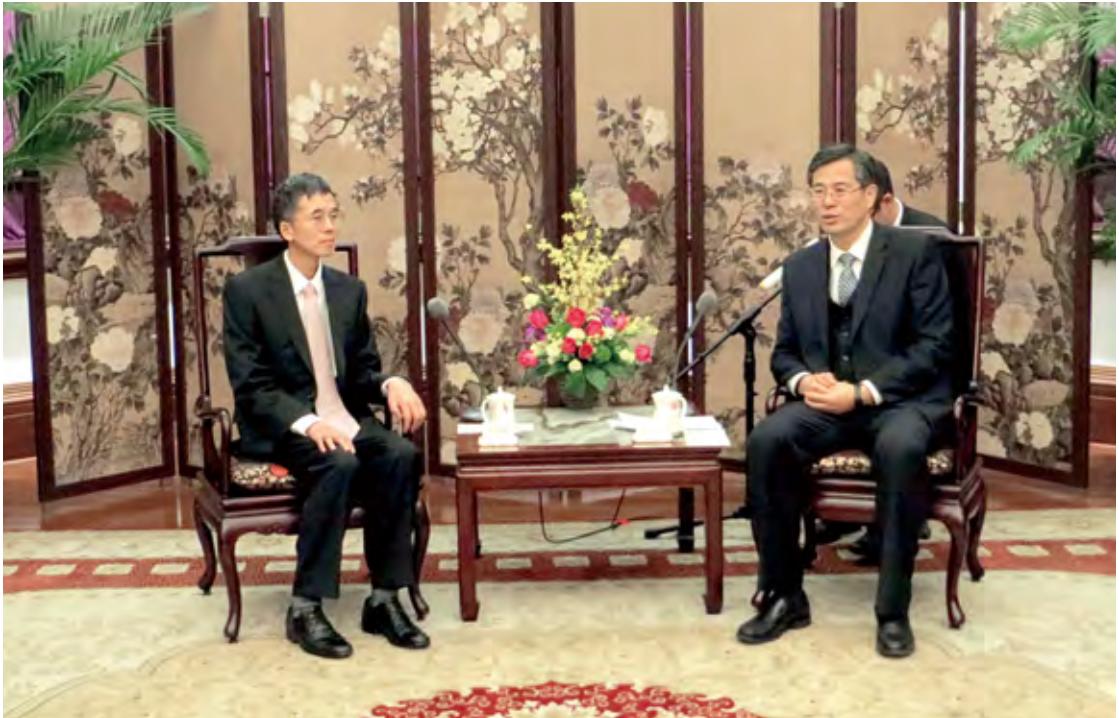
2.

지방정부

3국협력사무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현가능한 안건 및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3국의 여러 시·도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이 중앙정부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수준에서의 협력활동은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고 일반대중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다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

2017년 1월 16일, 양 허우란 사무총장이 이끄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광둥성을 방문하여 허 중유(HE Zhongyou) 부성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3국협력이 아시아 전체에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우메자와 아키마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은 한중일 3국에서 과학기술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상기시키면서 3국간 혁신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 부성장은 한중일 지방정부간 상호이해 증진에 대해 공통의 견해를 나누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여러 도시와의 협력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제주도

양 허우란 사무총장이 이끄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2017년 2월 9일 원희룡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한중일 지방정부간 협력을 3국 협력의 핵심 부분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의 지정학적·문화적 장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주도 및 제주평화연구소(JPI)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 도지사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제주도가 계속해서 3국협력을 지원하고 향후 지방정부 교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포항시

양 허우란 사무총장이 이끄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2017년 7월 4일 포항시를 방문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3국협력의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3국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간 교류가 3국협력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지방정부간 교류활성화 및 협력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문 의장은 포항시의 산업들과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상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중앙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공공기관

3국협력사무국은 3국협력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조정하고 있습니다. 2016 회계연도 기간동안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립연구소, 기타 특정 분야와 관련된 공공협회 등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3국간 협력사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주한중국문화원



서울에 위치한 주한중국문화원은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중국과 한국 양국의 우호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중국정부 산하의 문화분야 공공기관입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서울·중국의 날, 문화강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문화원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2016 회계연도 기간에 3국협력사무국은 2005년 ‘중국의 10대 예술거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친 바이란(QIN Bailan) 작가를 초빙하여 2017년 6월 15일 주한중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중국 고전미술 화법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공개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강연은 친 바이란 작가의 작화 시연 및 참석자들과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6월 15일

장 소: 한국·서울

강연자: 중국 예술거장 친 바이란(QIN Bailan)

주 제: “중국 고전미술의 이해”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National Institute for Youth Education: NIYE)는 청소년들에게 체험 학습과 세계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본의 공공기관입니다. ‘어린이 꿈의 기금’ 부서는 중국 아동복지위원회, 한국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6년까지), 서울교육대학교 (2017년 이후) 등과 함께 한중일 어린이동화교류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과의 협력관계는 2017년 제주포럼에서 오노 타모츠(ONO Tamotsu) 어린이 꿈의 기금 과장이 청소년 교육에 관한 3국협력사무국 세션에 참여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은 2017 어린이동화교류 프로그램에서 동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IYE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4.

언론 및 홍보

2016 회계연도 기간동안 3국협력사무국은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등 여러 언론단체와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IFTC)의 협력 언론사(조선일보, 인민일보, 아사히신문), 한중일 30인회(NATF)의 협력 언론사(중앙일보, 신화통신, 닛케이신문) 및 여타 3국의 주요 언론사 등 언론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왔습니다. 사무국은 3국협력에 있어 언론이 담당하는 역할과 상호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개세미나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이는 3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3국협력사무국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4개 언어로 제공되는 공식 홈페이지와 국문 페이스북, 중국어 웨이보, 일본어 페이스북, 영문 페이스북 등 3국의 주요 SNS를 대화채널로 활용하여 3국협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이와 같은 온라인상의 실시간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중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국협력사무국은 예방 및 출장 시 사무국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연령과 성별의 수준과 취향을 고려한 문화적 주제 및 다양한 특성을 담은 창의적인 기념품을 다수 개발하여 활용했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창립 60주년 기념 세미나

양 허우란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2016년 12월 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창립 6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한국언론진흥재단(KPF)과 서울외신기자클럽이 “2017년 동북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했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연사로 초청되어 동북아 협력에 관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발표 중 3국 협력을 위한 노력의 축적과 지역협력 진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전례가 없는 도전과 변동성을 인식하면서도 3국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세션에는 요네무라 코이치(YONEMURA Koichi) 마이니치 신문 국장, 조우 유보(ZHOU Yu Bo) 인민일보 국장, 박영률 한겨레신문 상임기자,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위원, 유석조 KBS 국제부기자 등 언론이 풍부한 언론인들이 참여하여 『3국협력에 대한 한중일 언론인 공동선언』, 한중일 미디어 협력 포럼 등 3국 협력과 3국협력사무국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과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12월 7일

장 소: 한국·서울

주 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참석자: 언론인, 기자, 관련 공무원 등 120여명

주 제: “2017년 동북아 정세 전망”

한중일 언론인 교류 세미나

3국협력사무국은 2017년 6월 23일 제4차 한중일 언론인 교류프로그램(TJEP)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한중일 언론인 교류 세미나(Trilateral Journalist Exchange Seminar)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뉴스미디어”로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발전하는 기술이 뉴스미디어의 콘텐츠, 제작 및 배급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종현 사무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3국의 높은 상호보완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무차장은 3국협력의 추진력 회복을 위한 3국협력사무국의 노력과 업적에 대해 강조하고, 동아시아의 공동번영 증진을 위한 미디어의 긴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주재한 다음 세션에서는 3국의 미디어 전문가와 언론인이 주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이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성 청위(XIONG Cheng Yu) 중국 칭화대학 교수는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미디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디어를 각 국가의 창으로 비유함으로써 3국 관계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켰습니다. 후지타니 타케시(FUJITANI Takeshi) 아사히신문 편집장은 뉴스의 기존 생산·배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미디어로의 전환의 불가피성을 언급했습니다. 후지타니 편집장은 한중일 미디어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개선을 위한 상



호면밀한 벤치마킹을 제안했습니다. 유홍식 한국 중앙대학교 교수는 미디어 체제의 불균등한 수익구조와 포털 사이트를 뉴스 매체로서 재분류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정보 수집 및 콘텐츠 관리에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제4차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TJEP)의 참여기자들도 그들의 경험과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6월 23일

장 소: 한국·서울

공동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참석자: 언론인, 기자, 미디어 전문가 및 일반 대중 등 100여명

주 제: “제4차 산업혁명과 뉴스미디어 — 한중일 3국 사례”

언론사 예방

양 허우란 사무총장이 이끄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2017년 3월 13일 이흥구 전 한국 총리(현 중앙일보 고문)를 방문했습니다. 아울러 사무국 대표단은 2017년 4월 3일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2017년 7월 20일에는 타케오카 린지(TAKEOKA Rinji)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상무를 각각 방문했습니다.

이흥구 전 총리와의 회동에서 양 사무총장은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이 전 총리의 지난 수년간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3국 협력의 진전과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흥구 전 총리는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증진하는데 3국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3국협력사무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이 정부간 협의체와 한중일 30인회(NATF) 및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IFTC)와 같은 협력사업을 통해 3국협력을 강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협의이사회와 이 전 총리는 또한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이흥구 전 한국 총리 (현 중앙일보 고문) 예방



한편, 양 사무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세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3국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과 국제기구의 기여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양 사무총장은 정치적인 어려움이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저해하지만 한중일의 경제적인 잠재력과 축적된 인적 교류를 고려할 때 3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 사장은 3국의 관계를 내부 기어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일관적으로 미래를 향해 작동하는 아날로그 시계 내부의 톱니바퀴로 비유하고, 시계 작동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과 조선일보는 IFTC와 사무국이 주최하는 여타 인적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또한 2017년 7월 2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닷케이신문사 본사를 방문해 타케오카 린지 상무를 만나 한중일 30인회 및 한중일 민간 부문의 교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닷케이 신문이 2016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일본 시즈오카에서 주최한 제11차 NATF에 사무국을 초청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으며, NATF가 경제 및 사회문화 부문에서의 3국협력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제안을 나누는 대화 플랫폼으로서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3국협력사무국은 NATF를 위한 후속조치로 한중일 808 공용한자를 홍보하기 위한 3국 공통 어휘사전(TCVD) 편찬사업을 개시하는 등 NATF를 더욱 실질적이며 의미있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타케오카 상무는 3국협력사무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제12차 NATF에 대한 닷케이신문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타케오카 상무는 중국에서 열리는 일본어 말하기 대회 등 닷케이신문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및 중국과의 여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IV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수행 및 출판

“협력 사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필요 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3자위원회 또는 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위하여
연간 실적 보고서의 제출; 3국 협력 관련 중요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 사무국 홈페이지 관리 및 3국협력에 대한 이해증진”

—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제3조 제1항 라호, 마호

2016 한중일 3국협력 실적보고서



《2016 한중일 3국협력 실적보고서》는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 실적보고서(Progress Repor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는 각 분야에서 진행 중인 3국협력의 발전상황에 대한 개황을 연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3국의 관련 정부 부처 승인을 받아 3국 정상회담, 장관회의 및 실무자 회의를 포함한 주요 연례사업을 기록합니다.

《2016 한중일 3국협력 실적보고서》는 2016년 중 달성된 3국 협력의 성과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 및 안보, 경제,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호,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대한 발전 상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2017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



《2017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는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Trilateral Economic Report)》는 3국협력사무국의 연례 간행물로서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대중에게 한중일의 경제 관계와 거시 경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3국이 올림픽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므로, 3국 정상회의와 한일중 통상장관회의,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에서 올림픽 대회를 위한 3국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2017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는 한중일의 거시경제 및 올림픽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7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는 중국의 주 저자와 한일 공동저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주 저자는 천 지엔(CHEN Jian) 중국 경제개혁학회 부회장이자 베이징 동계 올림픽 연구소 소장이며, 공동저자는 주원 한국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 오준범 한국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 및 사이토 준(SAITO Jun) 일본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입니다. 이 보고서는 (1) 3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과, (2) 3국간 경제 관계, (3) 올림픽이 3국에 미치는 영향, (4) 정책 권고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또한 이 보고서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한중일 저자들을 초청하여 3국 경제 협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

3국협력사무국은 2011년 설립 이래 매년 《한중일 3국 통계집(Trilateral Statistics)》을 통해 한중일의 경제, 사회, 환경 발전의 현재 및 향후 추세에 대한 주요 사실 및 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국 정부, 기관, 학계 및 일반 대중에게 최신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기반한 사무국의 연구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3국의 경제, 사회 및 환경 발전 추세에 대한 주요 사실과 수치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6 회계연도에 3국협력사무국은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Interactive Data Visualization)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3국의 통계자료의 활용 및 분석기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는 온라인상에서 3국의 자료를 쉽게 전송받고 연구논문 인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국 관련 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 사업은 3국간 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협의체 관련 통계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중일 공통 어휘사전

한중일 공통 어휘사전(Trilateral Common Vocabulary Dictionary: TCVD)은 3국 협력사무국이 제안하여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로 3국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한자 및 언어학 전문가들간의 교류와 연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편찬작업은 일본 한자적성검사재단, 푸단대학교, 연세대학교, 단국대학교의 전문가를 포함한 편집위원회가 주로 진행합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6년부터 사전 편찬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6년 11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일 공통 어휘사전 협상포럼 및 2017년 3월 3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중일 공통 어휘사전 전문가회의를 포함하여 사전 편찬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 및 전문가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이들 회의에서의 전문가간 논의를 바탕으로 한중일 공통 어휘사전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편찬되는 3국의 사전을 통합·편집하여 한중일이 공유하는 약 600개의 공통어휘를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설립 5주년 기념 리셉션



3국협력사무국은 설립 5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 9월 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16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이 리셉션은 협의이사회의 이취임 없이 3국협력사무국이 주최한 첫 리셉션으로 사무국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3국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3국협력사무국이 한중일 협력의 중심 혹은 포컬포인트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와 향후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해 리셉션에는 이흥구 전 국무총리, 고건 전 국무총리,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 나가미네 야스마사(NAGAMINE Yasumasa) 주한 일본대사, 하오 샤오페이(HAO Xiaofei) 주한 중국 대리대사, 그리고 신봉길 3국협력사무국 초대 사무총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단, 정부관료, 언론인, 학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 3국협력사무국이 일군 성과를 치하하고 3국협력을 보다 폭넓게 발전시키기 위한 한중일 공동의 지혜와 노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3국 협력의 형태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한중일 국가지도자들의 비전이 사무국의 설립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오늘날 사무국은 여러 정부 협의체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활동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3국 협력에 대한 긴밀한 관심을 지속하기로 하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위해 사무국이 향후 5년간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양 허우란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지난 5년간의 3국협력사무국의 발전과 성과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3국 협력과 3국협력사무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보여준 성원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한중일 3국 협력이 잠재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3국협력사무국이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한중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3국 협력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개요

일 시: 2016년 9월 1일

장 소: 한국·서울

참석자: 3국협력 관련 한중일 정부, 기업, 학계, 언론, 외교단, 민간협회 등 300여명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오픈하우스 2017

오픈하우스는 사무국을 일반인 및 외교단체에 개방하여 3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3국협력사무국의 대외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전통 음악, 무용, 다도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해마다 3국협력사무국은 사무국의 업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및 이해 제고를 위해 3국 협력 사진전, 국제기구 커리어 상담 등의 특별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사무국은 2017년 3월 14일 “한국, 중국, 일본의 차 문화 체험”을 주제로 오픈하우스를 개최하고 일반인, 주한 외교단 및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한중일 다도 시연과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130여명의 참석자들은 3국의 차문화를 경험하고 한중일 협력의 발전에 있어서 3국협력사무국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양 허우란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3국협력사무국을 한중일 협력의 촉매 및 추진체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전달하고, 협력기관 및 외교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2017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IFTC) 최종 결과보고서」 등 출판물 배포를 통해 3국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노력을 알렸습니다.

오픈하우스의 하이라이트는 박동춘 성균관대 겸임교수의 “동아시아 차 문화”에 대한 특별 강연과 한국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중국의 인야티아카데미, 일본의 다도우라센케 소속 한중일 차 전문가들의 다도 시연을 포함한 차문화 공연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특별 강연에서 3국이 공유하는 동아시아 차문화가 소통과 만남을 위한 편안하고 향긋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용도와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한중일 3국이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역간 공존의 미래를 위하여 차문화의 특성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3월 14일

장 소: 3국협력사무국

참 가 자: 일반인, 외교단, 언론인 등 130여명

주요활동: 강연, 3국 차문화 공연, 차 시음, 차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협의이사회 이취임식

3국협력사무국 협의이사회 이취임식은 매 2년마다 협의이사회의 임기종료를 앞두고 개최됩니다. 이 리셉션은 지난 2년 간의 임기동안 사무국의 업적과 직면했던 도전들을 돌아보며, 다음 협의이사회가 향후 2년간 사무국을 더욱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임기가 종료되는 협의이사회를 송별하고 새로운 협의이사회를 3국협력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2017년 8월 2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3회 3국협력사무국 이취임식이 개최되어 한중일 정관계, 경제계, 학계, 언론,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민간 협회 등 200여명의 초청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임사에서 양 허우란 사무총장은 사무국 설립 이래 한중일 협력과 사무국에 대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연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이종현 후임 사무총장은 신규 협의이사회와 함께 3국 협력의 제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으며, 앞으로 새 이사회가 이끌어 나갈 사무국에 대한 참석자들의 긴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년 리셉션에서는 지난 2년간 3국 협력 증진을 위해 헌신한 지난 협의이사회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이정규 한국 외교부 차관보가 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개요

일 시: 2017년 8월 25일

장 소: 한국·서울

참가자: 3국협력 관련 한중일 정부, 기업, 학계, 언론, 외교단, 민간협회 등 200여명

주요활동: 한국 외교부 장관 감사패 수여식



한눈에 보는 FY2016 3국협력사무국 활동

정부간 협의체

정상회의

- 제19차 아세안+3(APT) 정상회의 16

장관급회의

- 제11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 21
- 제16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23
-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5
-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MM) 28
- 제9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TCMM) 31
- 제1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TSMM) 34

기타 협의체 및 후속사업

정 무

- 제9차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TRM) 17
- 제4차 한중일 대테러협의회 18
- 제3차 한중일 사이버정책협의회 19

경제 및 지속가능한 발전

- 제11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를 위한 고위급회의(SOM) 21
- 제1-2차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 실무그룹회의 22
- 공급망연결(SCC) 향상을 위한 한중일 대화 22
- 한중일 IP 심포지엄 24
-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위한 환경분야 실무급 및 국장급회의 26
- 제1회 환경보호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한중일 교사교류 프로그램(TTEP) 27
- 제3-4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29
- 한중일 산림용어집 발간 공동사업 실무자회의 30

사회·문화

- 2017 동아시아 문화도시(EACC) 프로그램 31
- 제9회 한중일 박물관장회의 32
- 제10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33
- 제1차 한일중 대학총장포럼(TRF) 34
- 제18-19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35
- 제11회 한중일 30인회(NATF) 36
- 제1차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NCTC) 38
- 대표자 회의 및 한중일 대화

한중일 3국 협력사업

정 무

- 브렉시트가 지역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 세미나 40
- 2016 TCS-KFF 국제회의 — 한중일 경제협력: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향하여 40
- 초국경 이슈 관련 3국 협력을 위한 사전 회의 41
-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신진학자/연구원 교류 프로그램 42
- 지역 협력에 관한 지역간 대화 —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43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 3국 혁신정책 심포지엄 44
- 제2차 한중일 경제 심포지엄 45
- 공급망연결(SCC) 향상을 위한 한중일 비즈니스 심포지엄 및 교류회 47

사회·문화

- 제3회 한중일 인문 교류 포럼 48
- 2016 세계한학대회 49
- 제3차 한중일 기자 공동취재 프로그램 49
- TCS LOUPE: 유쾌한 한중일 무비토크 50
- 제6회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 51
- TCS 지역교육협력 세미나 — 한중일의 캠퍼스아시아 51
- 2017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TJEP) 52
- 제5회 청년대사프로그램(YAP) 53
- 한중일 공동 어휘사전(TCVD) 73

공동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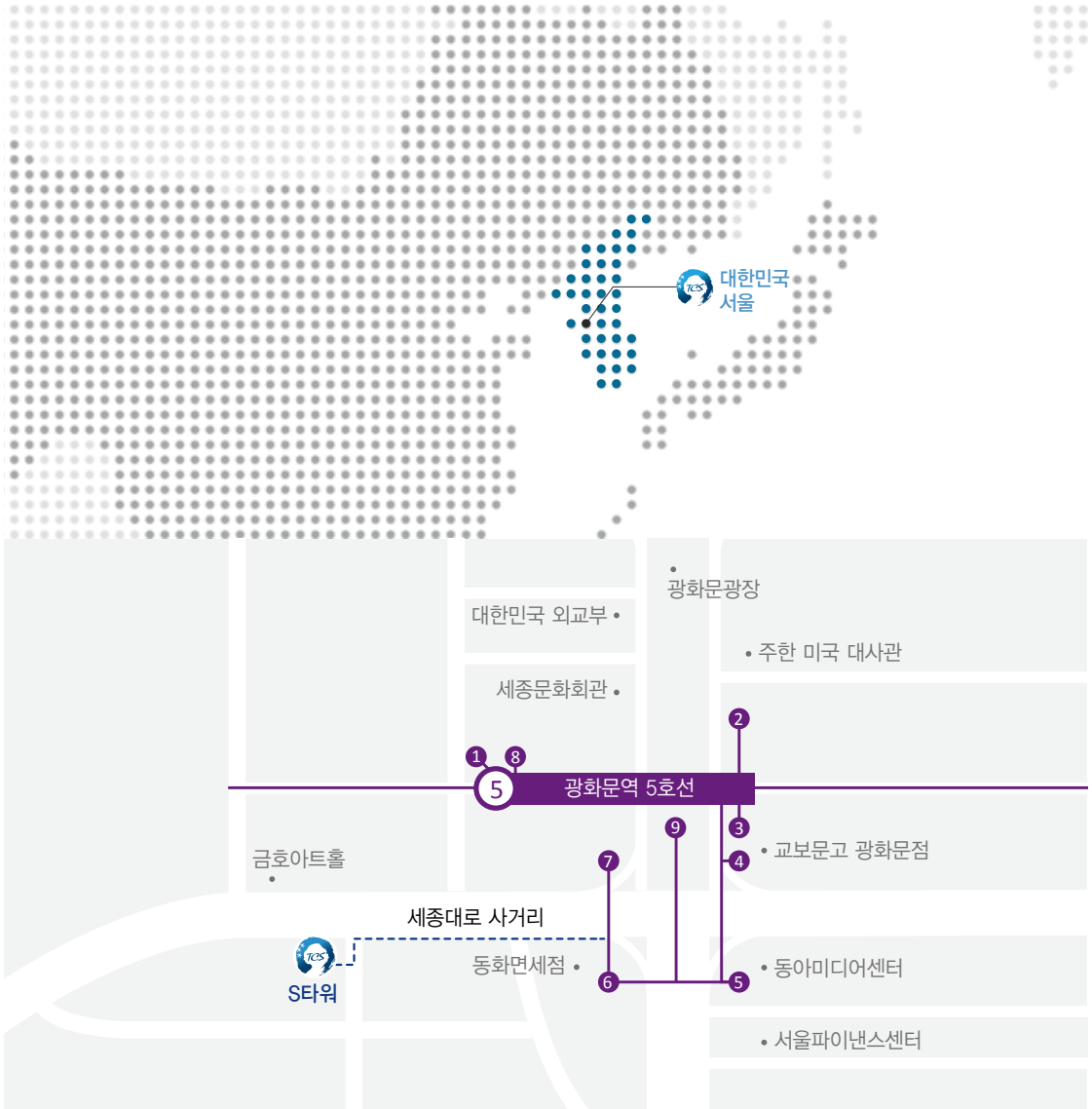
- 2017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IFTC) 55
- 2017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아시아의 미래 번영 공유 57
-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오픈하우스 2017 75

영문 약어

AI	Artificial Intelligence
AMCDRR	Asian Ministerial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T	ASEAN Plus Three
AR	Augmented Reality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C	ASEAN Secretariat
C/PVE	Countering/Preventing Violent Extremism
CAICT	China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MPUS Asia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CA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COIC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CFAU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CJK	China, Japan and Korea (ROK)
CLAIR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PAFFC	Chinese People's Association of Friendship with Foreign Countries
CT	Counter-Terrorism
DRR	Disaster Risk Reduction
DSG(s)	Deputy Secretary-General(s)
EACC	East Asian Cultural Cities
EAVG	East Asian Vision Group
EU	European Union
FKI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TA	Free Trade Agreement
FY	Fiscal Year
G20	Group of 20
GAOK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GGGI	Green Growth Institute
GRIPS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GSS	General Services Staff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FTC	International Forum for Trilateral Cooperation
IoT	Internet of Things
IP	Intellectual Property
JCIE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JED	Joint Emergency Drill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FIR	Japan Forum on International Relations
JPI	Jeju Peace Institute
JPO	Japan Patent Office
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KCFA	Korea-China Friendship Association
KFF	Korea Future Foundation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P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NDA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PF	Korea Press Foundation
Lao PDR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NG	Liquefied Natural Gas
LOUPE	Lecture on Uncovering Panoramic East Asia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MOE	Ministry of Education
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COM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OK
NATF	Northeast Asia Trilateral Forum
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IYE	National Institute for Youth Education
NTCT	Network of Trilateral Cooperation Think-Tanks
PS	Professional Staff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OD	Record of Discussion
ROK	Republic of Korea
SCC	Supply Chain Connectivity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FCC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SG	Secretary-General
SIPO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China
SOM	Senior Officials' Meeting
STI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
TAF	The Asia Foundation
TCMM	Trilateral Culture Ministers' Meeting
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C	Trilateral Cooperation Studies Center
TCVD	Trilateral Common Vocabulary Dictionary
TEDMM	Trilateral Education Ministers' Meeting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THMM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TJAP	Tripartite Joint Action Plan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TJEP	Trilateral Journalist Exchange Program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TRF	Trilateral Rectors' Forum
TRIPO	Trilateral IP Offices
TRM	Top Regulators Meeting
TSMM	Trilateral Sports Ministers' Meeting
TTEP	Trilateral Teacher's Exchange Program
UCC	User Created Contents
UNESCAP-ENEA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UNG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GE	United Nations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UNISD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VR	Virtual Reality
WGEPR	Working Group on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WGHRD	Working Group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GOIS	Working Group on Online Information Sharing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YAP	Young Ambassador Program

3국협력사무국 약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2016 회계연도 연례보고서

2018년 3월 인쇄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20층 03185

T. +82-2-733-4700 | F. +82-2-733-2525

tcs@tcs-asia.org

편 집 김희진, 야마모토 사토시, 코야마 케이코, 손하예슬

검 토 추보타 카오루, 장은영, 차오 원, 정광용

감 수 이종현, 야마모토 야스시, 한 메이

번역감수 장은영, 정광용, 손하예슬

Copyright © 2017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이 책의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
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8005418)



www.tcs-asia.org



한일중 3국협력사무국



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



日中韓三国協力事務局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